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옥선¹, 방해순^{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²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Ouk-Sun Cho¹, Hae-Soon Bang^{2*}

¹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MAPS 다문화 청소년패널 5차년도 다문화 학부모용 데이터에 응답한 96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전매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을 통해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효능감의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주제어 : 융복합, 일상생활스트레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부모효능감, 다문화 부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aily life stress of the multicultural parent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the chil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 efficacy on the process. To this end, we surveyed 960 multicultural parents who responded to MAPS' multicultural youth panel 5th year data for paren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aily life stress of multicultural parents did not affect the learning care style of their children. Second,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be mediating between daily life stress of multicultural parents and child's learning care style. In other words, the positive role of parental effic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hild's learning care style by improving the stress-relieving ability of multicultural parents.

Key Words : Convergence, daily life stress, learning care style, parent efficacy, multicultural parents

1. 서론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화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로 다문

화가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는 198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다문화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Corresponding Author : Hae-Soon Bang(newsae@hanafos.com)

Received July 31,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1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은 농어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역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면 자신들의 행복감이 증가되고 삶의 터전인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1]. 2015년 교육부[2]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약 20만명)하는 현상인데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2012년도는 46,954명에서 2013년도는 55,780명, 2014년도는 67,8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 수는 약 12.1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천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2015년도는 4,516명, 2016년도는 5,191명, 2017년도는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율도 2015년도는 1.2%(54명)에서 2016년도는 1.73%(90명)로 늘어났다[3].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 언어장벽, 편견 및 가정 돌봄과 거부감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 조사결과,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로는 친구 관계 및 공부의 어려움, 공부 흥미 부족, 경제적인 부분 등을 지목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다문화 부모의 자녀 학습 케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이탈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자녀의 학습에 대한 세심한 관심 및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향상을 위한 케어 방법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자녀의 학습과 양육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건강 문제를 들 수 있다[5]. 이는 가정불화, 경제적 손실, 부부관계 및 자녀의 학업 케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감, 상실감, 공허감 등을 느끼며, 같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라도 남성

보다는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7-9], 전업주부들이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인의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습케어와 가정생활 및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모들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있어 뒤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감소시키고, 성공적으로 자녀의 학습 케어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문화 부모와 자녀의 학습 케어 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개개인의 고유한 변인이기보다는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목적 달성과 산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다[11]. Shin[12]은 부모효능감을 부모 역할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적응,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자녀와의 문제 등도 훌륭히 대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삼중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문화 여성은 모국의 관습과 지식, 기술, 가치관 등을 적체적소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게 되면 부모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향상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지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간에 양질의 효과를 발생해 자녀의 학습 케어 돌봄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13]. 즉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므로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민하지 않고 차분하여 자녀 학습 케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13].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대상이었으며, 더불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밝히

는데 주목하였다. 선행연구[12]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나 부부관계, 연령, 자녀의 성별, 자녀양육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일상생활(양육포함)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았으며, 양육행동도 부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효능감은 다문화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간에 있어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지·자아개념, 사회·정서 발달 등이 증진된다[14].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온정적 격려 등이 증진되었으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이나 자녀들의 의견무시, 체벌 등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의 심리적인 안녕과 자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양육과 전반적인 양육발달에도 영향을 끼쳐 자녀 학습 케어에도 안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14].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자녀의 발달과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익숙한 자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문화 적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으로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16-18]. 즉, 언어소통의 문제로 자기표현이 어려우며, 한국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자녀교육에서 소통과 양육의 문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19-21]를 높임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대한 향수, 주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립, 외로움, 가족과의 갈등, 차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집진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경험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22].

이제까지 부모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일반 가정에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 부모의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다문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어려움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다문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다문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부모효능감이 매개역할을 보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개발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MAPS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2015) 학부모용 데이터이며, 조사대상자는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9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의 국내 거주기간은 '14~16년 이하' 471명(49.1%), '17~19년 이하' 294명(30.6%)을 차지하고 '20년 이상' 112명(11.7%), '13년 이하'는 8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권자는 절반 이상이 '부부 공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으로 대답한 경우는 221명(23.0%)이고, 다음으로 '남편'이 171명(17.8%), '기타'가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주요 소득원은 대다수가 '남편'으로 대답했으며, '본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153명(15.9%)이었으며, 가정형편은 '보통이다' 417명(43.4%), '어려운 편이다'가 402명(41.9%), '아주 어렵다'는 120명(12.5%), '잘 사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21명(2.2%)으로 매우 낮은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출신국으로 '일본'이 378명(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이 250명(26.0%), 조선족 포함한 중국이 229명(23.9%), '동남아시아'가 62명(6.5%), '기타'는 4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이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 데이터로 자

녀 성적 향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칩’, ‘직접 학교공부를 가르침’, ‘학원에 보냄’,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봄’,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회전은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타당도가 .4미만인 ‘개인과외를 시킴’, ‘학원에 보냄’을 제외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함’ 5점 순서로 되어 있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는 부정적인 학습 케어와 긍정적인 학습 케어 형태인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자녀의 긍정적·부정적 학습 케어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737, .726을 보여주고 하위요인의 총합의 평균값을 자녀의 학습 케어라 한다.

2.2.2 일상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으로 지난 1주일간 걱정거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아이, 남편, 친구, 시부모/시댁식구, 친정부모/친정식구,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걱정거리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일상생활스트레스는 8문항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 4점 순서로 되어 있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값은 .894으로 나타났다.

2.2.3 부모 효능감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으로 자녀 양육 생각을 묻는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척도는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하여 요인회전 한 결과 타당도가 .4미만인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음’,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을 제외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되어 있다. 부모효능감의 Cronbach’s alpha값은 .877을 보여주고 있다.

2.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경로 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WIN21.0 프로그램 및 Amos 21.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적인 인과관계는 Amos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PSS에서 데이터의 이상점을 처리하고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을 적용하여 이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 및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평균값(sd)은 1.769(sd=.624), 부모효능감 평균값(sd)은 3.458(sd=.554),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의 평균값(sd)은 2.348(sd=.602)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평균값이 다른 변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부모효능감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척도와 왜도는 각각 절대값 10과 절대값 3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어 이후 분석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960)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DailyLifeStress	1.00	3.88	1.769	.624	.705	-.194
ParentEfficacy	1.86	5.00	3.458	.554	-.121	-.057
Child'sLearning Care	1.00	4.14	2.348	.602	-.108	-.186

다문화 부모의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와 일상생활스트레스 및 부모효능감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Will Average Income	Mom Age	Papa Age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Will Average Income	1					
Mom Age	-.079 *	1				
Papa Age	-.183 **	.450 **	1			
Daily Life Stress	-.233 **	-.024	.013	1		
Parent Efficacy	.073 *	-.079 *	-.043	-.065 *	1	
Child's Learning Care	.136 **	-.078 *	-.072*	.005	.168 **	1

*p<.05, **p<.0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진행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r=-.065, p<.05$) 및 월평균 소득($r=-.233, p<.01$)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녀 학습 케어 형태($r=.005, p>.05$)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r=.168, p<.01$) 및 월평균 소득($r=.073, p<.05$)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모연령($r=-.079, p<.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모두 0.5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연구모형 검증 결과

3.2.1 측정모형 분석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등을 포함한 관측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2718.275, df=224, p=.000, RMSEA=.089, SRMR=.056, CFI=.819$ 등의 값을 보여 모형의 적합도 중 CFI 값이 .90 보다 낮아 높여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초기 측정모형의 CFI 값을 .90 이상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설명력이 낮은 문항과 표준화계수 값이 .4미만인 값을 제거하고 모형을 재정립하였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1236.668, df=127, p=.000, RMSEA=.079, SRMR=.046, CFI=.901$ 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이는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 남편, 시부모/시댁식구, 친정부모/친정식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이후 분석에 적용한다.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χ^2	df	p	SRMR	CFI	RMSEA
		index	2718.275	224	.000	.056	.819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χ^2	df	p	SRMR	CFI	RMSEA
		index	1236.668	127	.000	.046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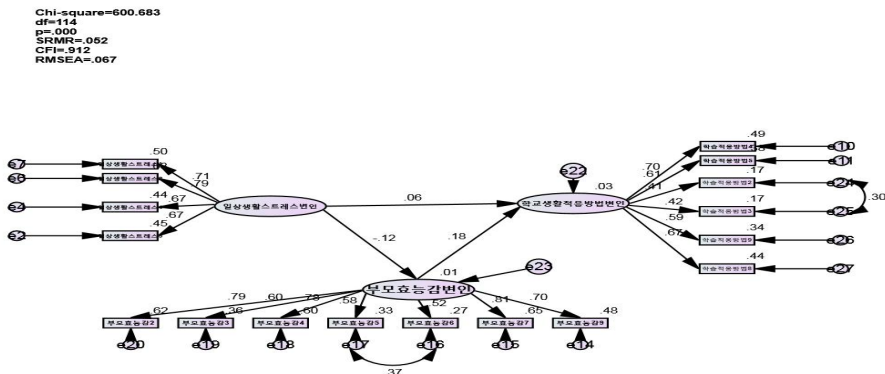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3.2.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 학습 케어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Fig. 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600.683$, $df=114$, $p<.001$, RMSEA=.067, SRMR=.052, CFI=.912 등의 값을 나타내어 최적 모델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136$, $t=-3.538$, $p<.01$). 즉,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나 자식 또는 친정 식구들과 시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거나 필요한 방법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신이 유능한 부모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 역할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88$, $t=4.516$, $p<.001$),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4$, $t=1.072$, $p>.05$).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 부모효능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의 지도 방법에 있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부모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Model estimate

Path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Parent Efficacy → Child's Learning Care	Daily Life Stress→ Child's Learning Care
B	-.201***	.115***	.039
β	-.136	.188	.044
S.E.	.057	.025	.037
C.R.	-3.538	4.516	1.072

* $p<.05$, ** $p<.01$, *** $p<.001$,

3.2.3 연구모형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효과분해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확률적으로 유의수준 .05 미만의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유의수준 .01수준 미만에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효능감에 의한 간접효과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효능감이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136*		-.136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188**		.188
Daily Life Stress	→Parent Efficacy	→Child's Learning Care	.044	-.026**	.018

* $p<.05$, ** $p<.01$,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부모효능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의 학습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별개로 행동함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인 부모의 가족 아동들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에 비해 교사관계와 학업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꼈으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한국인 부모 가족의 아동에 비해 경제 및 물리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23].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주는 영향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 또는 가족과 양가 부모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부모효능감이 떨어졌으나, 부모효능감이 향상되면 자녀의 학습을 케어하는데 있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모효능감을 통해서 자녀의 학습케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학습 향상을 위해 돌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및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자녀의 학습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는 다문화 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를 잘 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다문화 부모를 위해 그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진 자녀교육 방법 및 학습 케어 방법에 관한 도서를 보급하여 다문화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인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척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둘째,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으로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볼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S. Park, M. J. Lee.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and Community Conflict of the Korean Husband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1), 25-48.
- [2] Ministry of Education. (2015). <http://www.moe.go.kr/newsearch/>.
- [3] Asian Economy. (2017). <http://www.asiae.co.kr/news/>.
- [4] World News. (2017). <http://www.segye.com/newsView/20170202004390>
- [5] J. W. Berry. (1990).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health Consequences of Culture Contact among Circumpolar Peoples. *Arctic Medical Research*, 49(3), 142-150.
- [6] M. J. Kim. (1991). Coping Style and Crisis of Middle-Aged Housewives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29(1), 203-216.
- [7] J. S. Kim & K. L. Sin.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2), 352-361.
- [8] H. R. Kim. (2006).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Stress Level in Female Single Parents*. The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 [9] S. M. Park. (2009). *The Effect of Middle-Aged Women's Social Support ,Life Stresse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10] W. K. Chung. (2001). *A Study on Stress of Married Woman and it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 [11] Y. J. Shin & H. S. Kim. (2003). Parent Efficacy as an Applicable Concept of Andragogy: Implications for Disabled Children's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1), 59-84.
- [12] S. J. Shin. (1997).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 [13] D. H. Kim. (2008).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4] H. S. Choe.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15] J. Y. Ahn.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16] K. N. Han. (2014). The Effects of a Parenting Program on Parents' Self-Efficacy, Parents' Satisfaction, and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Early Childhood.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89, 287-315.
- [17] D. H. Ryu & S. H. Yi. (2016).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Stress-Coping Strategies,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Immigrant and Non-Immigrant Familie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107-131.
- [18] J. W. Berry.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19] B. Y. Jeon. (2012).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lturation Attitude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f Female Immigrated by Marriage. *Open Parent Education Research*, 4(2), 15-31.
- [20] S. A. Lee & H. J. Choi. (2016). A Research on Child Rearing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 in Multi 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133-155.
- [21] J. W. Berry.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K.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22] E. K. Le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Parental Role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27-48.
- [23] Y. J. Nam & S. Lee.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her's Attachment, Self-Concept, Daily Stress,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Typical Korean Famili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9, 357-367.

조 옥 선(Cho, Ok-Sun)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간호복지학부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여성, 장애
- E-Mail : sun16070@naver.com

방 해 순(Bang, Haesoon)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 1999년 9월 ~ 2013년 1월 : 새샘어린이집 원장
- 2014년 7월 ~ 현재 : 군포시립삼성마을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가족, 영유아, 여성
- E-Mail : newsaem@hanmail.com